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40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제2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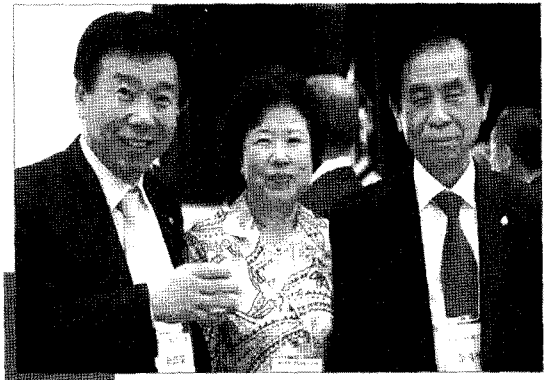
건설 · 안전 · 방재 · 교통



글 | 김斗煥
(Kim Du Hwan)

- 화공안전기술사
- 한국기술사회 연구원장

E-mail: kdh860@hanmail.net



▲ 만찬장에서의 기념촬영

한일기술사들 간의 우의를 다지며 오간지 40회가 되어 장년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오래전부터 왕래가 오갔던 역사의 도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카이교멧세 빌딩에서 이루어졌다.

오후 1시부터 5개 분과별로 분과별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분과별 발표는 한일 교대로 이루어졌으며, 제2분과는 안전 · 건설 · 방재 · 교통분과였다.

일본 측 3명 한국 측 3명으로 일본 측 좌장이 각 발표시간은 통역 합쳐 30분, 질문 5분으로 하고 종료 5분전에 예비종을 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끈다는 일본 측 中西 利美(나가니시 토시미/상하수도) 기술사의 원칙 발표가 있었다. 부좌장은 한국 측 김우준(수산) 기술사가 맡았으며 통역은 제일교포 신종미씨가 수고해 주시겠다는 소개가 있었다.

통역은 전공이 아닌 용어까지 잘 번역하여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다.

첫 번째 발표는 오후 1시 10분부터 45분까지 일본 측의 小林 武夫(코바야시 타케오/ 건설.

종합기술감리)기술사의 「일본에 있어서 제품 안전과 SG마크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일용 제품안전성 확보와 적절한 사용을 목적으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고 소비생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인정하는 SG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람의 사고에 대해 1억원의 배상조치를 법적으로 취하고 있다. (재)제품안전협회의 제품안전에 대한 시험 · 검사 · 조사 · 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제공 등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는 1시 45분부터 2시 20분까지 한국 측의 필자가 「연구실 분야별 위험도 안전관리 등급기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06년부터 3회에 걸쳐 연구실 안전관리법 제정, 표준연구실 안전교재개발과 기술사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연구실안전의 중요성을 모두 잘 알고 있었고, 흥미로워 했다.

이번에 「대학연구실의 위험도 측정 및 안전수준을 비교평가」 할 기준을 만들어 실제 대학연구실의 위험도 측정에 따른 안전수준을 종합대학연구실험실 현장실사를 통해 적용한 현실을 발표했다. 발표시간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일본기술사들이 찾아와 많은 질문과 격려가 있었고

앞으로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 번째 발표는 14시 20분부터 14시 55분까지 일본 측의 「호우로 인한 토석류 발생원인과대책」에 대해서 河内 義文(코오치 요시후미/건설응용이학)기술사의 발표가 있었다.

2009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중생대 화강암지대에서 토석류 흘러내림 발생으로 농지가 침수되고 양로원을 덮쳐 7명 사망 등 대형사고였다. 일본기술사회에서 1개월간 원인조사를 한 결과 경사 25에서 30도까지 토석흐름이 많았고 토석류 5도 10m에서 표토가 있을 때는 물이 흘러내려가나 없을 때는 3시간 후에 지하수가 빠르게 흘러 붕괴이상이 발생했다. 사례를 과학적 근거원인을 추적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토류 붕괴사고 발생원인 추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약 20분간 coffee타임을 가진 후 15시 15분부터 15시 50분까지 네 번째 발표가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주도록 좌장의 안내가 있었다. 쉬는 시간에 로비에는 포스터세션이 있었다. 일본기술사회 소속기술사들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의 팸플렛과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국기술사들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네 번째 발표는 15시 15분부터 15시 40분까지 한국 측의 「낙동강 사업의 토질분야 기본설계」라는 주제로 김학청(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추진하는 4대강 사업 중의 하나인 낙동강사업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토질분야 예비 안전도 측정으로 구간별로 측정하여 모두 안전성을 갖고 있어 기본설계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발표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일본 측의 深田 晃二(후카다 코우지/위생공학)기술사가 「실내공기 질의 규제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15시 40분부터 16시 15분까지 발표했다. 건축기준법과 건축물 위생법상의

실내환경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산화탄소(10ppm이하) 이산화탄소(10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0.08ppm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규제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

여섯 번째 발표는 한국 측 유충현(도시계획)기술사의 「친환경적인 장흥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안)」 발표가 16시 15분부터 16시 50분까지 있었다. 장흥지방의 지리적요건과 앞으로 산업단지로 발전성 있는 유망한 산업단지임을 강조하며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100여명의 한일양국기술사들이 꼭차서 끝날 때까지 대성황을 이루었고 안전분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표자들이 시간들을 잘 지켜주어 예정시간 내에 여유 있게 끝을 맺을 수 있었다. 발표시간상 질문을 하지 못한 기술사는 발표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간지연은 막을 수가 있었다.

일본 측 中西 利美(나가니시 토시미/상하수도분야) 좌장은 16시 50분에 제2분과 심포지엄을 끝마치며 장시간 모든 한일기술사들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로서 글을 마친다.



▲ 제2분과 발표전경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26일)